

# 또 뚫린 하프스페이스... 벤투 이어 클린스만도 못 고치나

페루, 허술한 압박 돌파 후 하프스페이스 공략  
카타르월드컵 전부터 노출된 문제...해법 시급

축구 국가대표팀이 또 하프스페이스를 공략 당했다. 하프스페이스란 축구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했을 때 양쪽 측면과 중앙을 제외한 그 사이 공간을 뜻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에 이어 울르겐 클린스만 감독도 한국 수비의 하프스페이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지난 1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1로 졌다.

실점 장면에서 한국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 당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가 선봉리 압박에 나섰다 상대 패스에 돌파를 당했다. 그 러자 중앙 수비수 정승현이 그 공간을 채우려 뒤따라 압박하다 파울로 게레로와 동료의 월 패스에 뚫렸다. 이에 박지수와 안현범까지 공간을 메우기 위해 중앙으로 몰렸다.

39세 베테랑 게레로는 한국의 허술한 전진 압박으로 인해 생긴 공간을 놓치지 않았다. 게레로는 반대편 하프스페이스에 있던 브라이언 레이나에게 킥패스를 넣었고 레이나는 왼발 슛으로 손쉽게 골을 성공시켰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가 한국 수비의 하프스페이스 방어 취약점을 간파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9월23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 당시 전반 40분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한 베네트를 막지 못해 선제골을 허용했다. 후반 19분에도 하프스페이스를 거친 코스타리카의 공격에 손쉽게 풀리며 골을 내줬다.

카타르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하프스페이스 수비가 말썽이었다. 지난해 12월3일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 당시 전반 5분 김진수가 디오고 달랏에게 돌파를 당할 때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리카르도 호르타를 막지 못했다. 호르타는 달랏의 킥백 패스를 받아 쉽게 골망을 흔들었다.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은 하프스페이스 문제의 집대성이었다. 실점한 4골 모두가 하프스페이스 수비 문제에서 비롯됐다.

전반 7분 하프스페이스를 돌파한 하피냐가

반대편 하프스페이스에 있던 비니시우스에게 땅볼 크로스를 보냈고 비니시우스는 수비 방해 없이 골을 넣었다. 전반 28분 히사를리송의 골이 시작된 지점 역시 하프스페이스였다. 4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는 손쉽게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파케타의 골을 만들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 데뷔전이었던 지난 3월24일 콜롬비아전에서 후반 1분 만에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한 발로에스를 막지 못했고 그 결과 쇠도하던 하메스 로드리게스에게 골을 내줬다.

콜롬비아전에 이어 이번 페루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략을 당하면서 하프스페이스 수비 개선이 클린스만 감독의 과제로 떠올랐다.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위해서는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 간 연계와 호흡이 중요하다. 기존 중앙 수비(김민재와 김영권), 측면 수비(김진수와 김문환 등) 사이에 협력과 호흡에 문제가 연이은 실점을 통해 드러난 측면이 있다.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의 도움이 부족했던 측면 역시 있다. 팀 전반적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하프스페이스 방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 페루 브라이언 레이나가 슛을 하고 있다.

한층 더 허술해지는 점은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의 수비 가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클린스만 감독이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아컵에서 목표인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탄탄한 수비가 필수적이다.

김민재의 기초군사훈련과 김영권의 부상으로 6월 A매치 기간 하프스페이스 수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아컵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

## 전남 육상 전국대회 금 3·은 5·동 4개...김장우 세단뛰기 대회신



남자 육상 세단뛰기 선수 김장우(장흥군청·오른쪽 두번째).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육상팀 김장우(장흥군청)가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계를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연맹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남팀은 금 3개, 은 5개, 동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장우는 이번대회 남자부 세단뛰기에 출전해 3차시기에서 16.50m를 기록해 대회신 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6차시기에서는 자신의 기록을 16.73m로 늘리며 남수환(제주시청·15.53m)과 김동한(안동시청·15.49m)를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여자 해머던지기 1인자 박서진(목포시청)은 57m57을 던져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이아영(광양시청)도 400m에서 56초69의 기록으로 전남팀에 세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부 해머던지기 출전한 김진(목포시청)은 61.26m로 은메달, 여자부 1만m에서 김은미(여주시청)가 36분17초 45로 은메달, 여자부 높이뛰기에서 김은정(여주시청)이 1m60으로 은메달, 여자부 포환던지기에서 정소은(목포시청)이 15m09로 은메달, 여자부 해머던지기에서 권수아(장흥군청)가 54m42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전남팀은 이승호(광양시청)가 남자부 10종경기에 출전해 3297점으로 동메달, 남자부 800m에서 김동욱(나주시청)이 1분53초로 동메달, 여자부 5000m에 출전한 김은미(여주시청)·여자부 3200m 계주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역 대표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전국체전에서 한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체조 여서정, 아시아선수권 女도마 올해도 금메달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317점으로 우승

한국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제천시청)이 제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서정은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 여자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317점으로 1위에 올랐다.

예선 1,2차 시기에서 각각 13.900점, 13.466점으로 평균 13.683점을 얻은 여서정은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도 여서정의 활약은 계속됐다.

결선 1차 시기에서 14.433점을 얻고, 2차 시기에서 14.200점을 받아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여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던 여서정은 2연패에 성공했다.

여서정은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다가오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리고, 좋은 결과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서정(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올댓스포츠 제공)

이어 "오는 10월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의 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이번 대회에서 얻은 성과와 보완점을 참고하여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 조규성, 유럽 진출 추진... 英 2부리그 왓포드 등 관심 조규성 측 "오퍼 기다리는 중... 여러 구단 비교해 최종 결정"

올여름 유럽 진출을 추진하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전북)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 왓포드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성의 에이전트인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는 17일 뉴스와 통화에서 "왓포드가 조규성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개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성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구단이 있다. 공식 제안을 보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왓포드도 정식 오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881년 창단한 왓포드는 2020-2021시즌 챔피언십 2위로 프리미어리그(EPL)에 승격했

나, 2021~2022시즌 EPL 19위로 다시 챔피언십에 강등됐다.

지난 시즌에는 2부리그에서 11위를 기록했다.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박주영이 2013-2014 시즌 임대로 뛴 팀으로 알려져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 멀티골로 '깜짝 스타'가 된 조규성은 이후 유럽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셀틱(스코틀랜드)을 비롯해 마인츠(독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미국) 등이 영입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조규성은 전북 잔류를 선택했다.

박지성 전북 디렉터의 조언을 얻어 시즌 도중이 아닌 다음 시즌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여름을 적기로 판단했다.

## 뜨거운 오타니, 시즌 23호포 '뿡'...통산 150호 홈런

최근 6경기 5홈런 폭발...ML 전체 홈런 1위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7회 솔로 홈런을 때려낸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뜨거운'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또 홈런을 쏘아올렸다.

오타니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유일한 안타가 홈런이었다.

에인절스가 7-2로 앞선 7회초 1사 주자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상대 구원 테일러 클라크의 가운데로 물린 체인지업을 노려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2018년 빅리그에 데뷔한 오타니의 MLB 개인 통산 150호 홈런이다.

오타니의 방망이는 뜨겁다. 최근 6경기에서 홈런 5방을 몰아쳤다.

시즌 23호 홈런을 날린 오타니는 피트 알론소(뉴욕 메츠·22홈런)를 제치고 MLB 전체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19홈런)와 격차를 4개로 벌였다.

오타니는 홈런에 앞서 5회초 1사 1,3루에서는 2루 땅볼로 타점을 올렸고, 9회초에는 1사 2루에서 볼넷을 골라냈다.

하지만 오타니의 활약에도 에인절스는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9-10으로 역전패했다.

에인절스는 2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캔자스시티는 10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뉴스